

##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 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 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아론과 훌 중보기도 용사 및 목자 부흥의 밤(1/20)
  - 신년축복성회(1/22~25, 강사: 방재길 목사, 세계로 방주교회)
  - 공동의회 및 부서장 회의(2/1)
  - 교역자 및 그룹장 모임(2/3)
  - 성도양육과정 시작(2/11)

가정교회 보고서



## 가정교회 예배안 2026. 1. 11

**1월 둘째 주: 세상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되자. (창세기 1:26-28)**

### ■ Welcome

과거에 새해에 결단한 것중에 아주 성공적인 결과가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또 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 본문: 창세기 1:26~28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 서론

금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작년과 동일하게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이다. 주제 성구는 시편 145:4으로 “모든 세대가 주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세대는 대대로 이어지는 세대를 의미한다. 1세대, 2세대, 3세대.... 노년과 중년, 청년과 다음 세대, 어린이까지 모든 세대가 신앙과 사역을 이어가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연합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다. 지난해 우리 교회는 1,540명이 넘는 많은 교인들이 단기선교에 참여하는 은혜를 경험하였다. 그 안에는 성인들 중심이지만 교육부 자녀들과 EM도 포함되어 있었다. 올해도 우리는 이 세계선교의 목표를 향해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계속 달려갈 것이다.

이 사명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새해 첫 주일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1장 26-28절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명령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가운데 인간에게 맡기신 사명과 책임을 선포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관찰 질문: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해답 1. 충만하라(Be Fruitful and Multiply).

이 명령은 인류가 생물학적으로 번성하여 온 땅에 퍼져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 이후 인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노아의 홍수로 인류가 심판을 받았으나, 오늘날 지구에는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뜻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신 것이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었고, 우상을 섬기며 악이 세상에 충만해졌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충만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백성들로 세상이 가득해지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는 충만함이다. 이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교회에 새로운 명령을 주셨다.

(마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딤후 4:2)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물어든지 항상 힘쓰라”

❁ 적용 질문 1

1) 우리는 각자 있는 곳을 어떻게함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을지 서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답 2. 정복하라(Subdue).

‘정복하라’(히: 카바쉬)는 ‘파괴하거나 억압하라’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 이미 담겨 있는 질서와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여 삶의 터전을 세우라는 의미이다. 즉, 혼돈을 질서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정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며 엉킨 것을 풀고, 불편한 것을 고치며, 위험한 것을 안전하게 만드는 모든 노력이 여기에 해당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문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예술과 문화를 세우며,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책임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복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바로 세우라는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라는 거룩한 사명이다.

1975년, 빌 브라이트(CCC 창설자)와 로렌 커닝햄(YWAM 창설자)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영역 속에서 성경적 가치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의 핵심 7개의 영역을 구분하였다.



##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사회변화를 위한 7가지 영역 이른바 ‘7개 산(7 Mountains)’

① 정부(Government) ② 경제·비즈니스 ③ 교육(Education) ④ 미디어(Media) ⑤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⑥ 가정(Family) ⑦ 종교·교회(Religion)

그리스도인은 각자의 직업 현장에서 일상의 선교사로 부름받았다. 그러므로 각자의 자리에서 그 땅을 정복하여야 한다. 있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될 것이다.

❁ 적용 질문 2

- 1) 내 삶의 영역에서 혹 혼돈하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2) 정복(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땅이 되게 하는 것)해야 할 내 삶의 영역은 무엇인가요?

해답 3. 다스리라(Have Dominion).

‘다스리라’(히: 라다)는 폭력적 지배가 아니라 선한 청지기로서의 통치를 의미한다. 인간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맡아 돌보는 대리자이다. 왕이 백성을 돌보듯, 인간은 피조물이 각자의 목적에 따라 잘 살아가도록 보호하고 관리할 책임을 지닌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계를 친히 다스리실 그날까지, 우리는 삶과 사회와 국가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살아가야 한다.

\* 어떻게 이러한 다스림(통치)을 이룰 수 있는가?

1. 전문성을 통한 가치 창출

각자의 직업 현장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는 것이 ‘다스림’의 출발이다. 모든 성도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소명을 받았다. 청교도들은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calling)’으로 여겼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도구라 믿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의 전문성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리고 문명을 세워가야 한

2. 성경의 기준 제시

우리가 거하는 사회와 각자의 영역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흐름을 거슬러 성경적 기준을 지켜내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떠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질 때, 그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된다.

❁ 적용 질문 3

- 1) 다스리기 위해 먼저 확인할 것은 내가 ‘청지기’라는 것이다. 청지기 의식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 2) 올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삶과 사역이 되도록 (자신의 분야와 삶을 나누시고) 서로 중보합니다.